

이창용 “1.5% 성장률도 위태… 금리인하 속도 조절 필요”

〈한국은행 총재〉

대내외 환경 급변… 불확실성 우려
금통위원들, 4개월내 인하 의견
이 총재 “내달 인하 가능성 있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다. 밝아질 때까지 스피드를 조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정책의 강도와 주요국의 대응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관세정책의 여파를 지켜보면서 상황이 한층 명확해질 때까지 신중히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 경제성장률 예상치 하회

이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예상치(1.5%) 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2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췄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경제전망을 발표할 당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이렇게 오래가고, 대형 산불이 발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이 예상한 시나리오보다 강한 상황이어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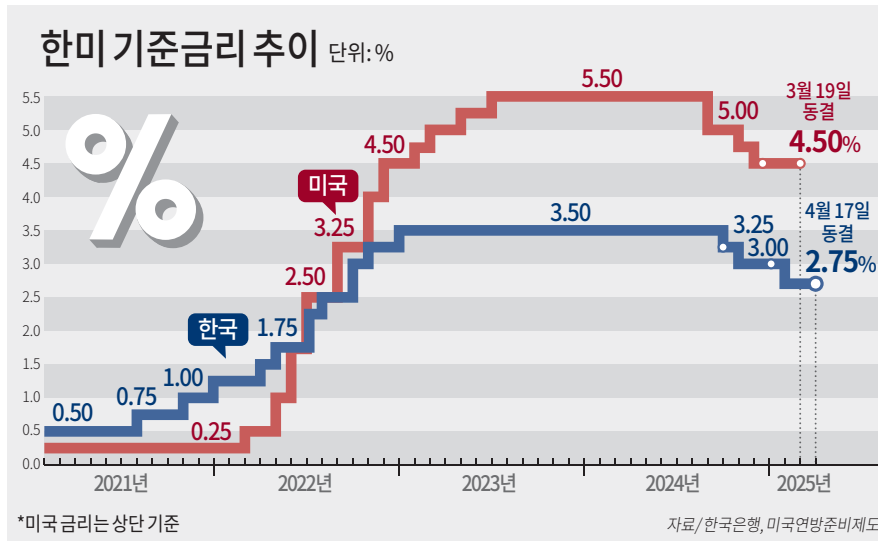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2%로 낮췄다. 그러나 현재 1분기 성장률은 0.2%를 밑도는 상태다.

2분기 성장률 전망치 0.8%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내수는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부진이 완화될 수 있지만, 수출 부문은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보복관세로 중국의 대(對)미 수출이 줄면서 우리의 대(對)중 중간재 수출도 감소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2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2분기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5월 금리인하 가능성”

그럼에도 이 총재는 환율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기대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16.0원으로



출발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달 10일 1482.90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1414.20원을 찍었다. 6일 만에 환율 변동폭이 68.7원에 달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주식을 순매도할 수 있어 외환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중 간의 보복관세로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적잖다.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관세조치를 할 경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갈등이 심화될수록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관세 여파만 지켜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남아나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이달 미국은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동남아,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 부과 정도가 확실시돼야 여파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은 모두 4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으니, 5월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선 등 정치적 이슈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데이터만 보고 결정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이복현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금융상황점검회의
관세대응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 가동
이 원장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 시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미 관세 충격으로 인한 국내 경제 하방 압력을 진단하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관세 충격까지 겹쳐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며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채 금리 급등은 미국 중심의 경제·금융·무역 정책에 대한 반발의 신호로도 해석된다”며 “관세 협상 난항과 글로벌 신뢰 약화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변질 가능성에 대비해 고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 대응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총괄, 시장점검, 산업분석, 권역별 대응반으로 구성되며,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국내 기업, 금융시장 전반의 영향을 종합 분석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특히 “관세 여파로 주문 급감,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협력업체, 산업단지 인근 자영업자들의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운전자금, 금리우대, 중장기 투자자금 지원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권이 충분한 자금지원 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 및 유동성 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감독행정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와 경기침체에 취약한 가계, 소상공인, 기업의 연체 확대가 금융권의 자금공급 기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유동성 확보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후 임원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일시 2025년 5월 9일(금)~5월 11일(일)
장소 영양군청앞마당 및 일원



산나물의 고장 영양에서 맛 보는 봄의 선물

일월산기슭에서 자라는 산나물은 독특한 향기를 지니고 있으며
그 맛과 향기가 뛰어난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무침, 부침, 찜으로 우리 조상들의 밥상에 올랐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으며 소중한 약재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산불피해 빠른 회복을 응원합니다

영양군에서 정성으로 준비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산나물과 봄의 먹거리를 소개합니다.

YFTF 영양축제: 관광재단